

“균형발전 광역모델”...광주시-경기도, 상생협력 속도

시청서 간담회...협력 체결 후속 협력과제 점검·확대 논의

AI 실증기업 지원·미래차 전환사업 발굴·청소년 교류 등 활발

광주시와 경기도가 공동 변영을 목표로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와 경기도는 지난 3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경기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광주시-경기도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만남으로, 협력 과제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협

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협력 과제는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선도 협력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청년·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추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운영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양 시·도는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증기업 제품평가 및 기술 지원, 인공지능 박람회 등에 교차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모빌리티 전환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간담회, 청소년 교류행사 등

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양 시·도는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사업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광주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전환에 주력하고,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친환경차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양 시도의 중점사업을 교류·협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해 5월 ‘기회수도 경기’와 ‘기회도시 광주’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며 “경기와 광주는 더 큰 도약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3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행정1, 2부지사와 '광주시-경기도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창업기업 실증지원 사업' 매출 증대·고용창출 효과 '톡톡'

참여기업들 65억원 매출 달성 대구·경북·우즈벡 등 판로 확보

도시 전체를 혁신기술 시험무대로 제공하는 광주시의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판로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이 끌어내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31개사 창업기업은 조사한 결과, 매출액 65억원을 달성하고 신규고용 46명, 대구·경북, 우즈벡스탄 등 국내·외 판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은 기업이 개발한 초기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도시 곳곳을 실증 공간으로 제공하고, 시장 출시 이전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의 '실증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호남스

마트코리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맨을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추락방지 맨홀 시스템'을 개발·실증했는데, 광주 4개 구청과 대구, 경북 등 전국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트로닉스는 스마트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실증해 1억 6000만원의 매출 성과를 냈으며, 우즈벡스탄과 1000만달러 투자협약을 맺고 해외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또 도심 실증에 성공한 ㈜아이테크의 '시내버스 정류장 탑승객 유무 표시 장치'는 시내버스 정류장 진입시 운전자가 탑승객 유무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치인데, 이용객 만족도가 매우 높아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들도 매출 상승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메가웍스 '스트레스 사위실'은 17억5000만원의 매출과 함께 올해 삼성 C-Lab 아웃사이드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으며, ㈜모아엔텍 '약취제거 맨홀' 8억4000만원, ㈜휴텍산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인명구조함 자동관리시스템' 6억 7000만원, ㈜담우광학전자기술 '바닥신호등' 4억원, 디투리소스 '다회용 컵 회수기 3억9000만원' 등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광주시는 올해도 전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도심 곳곳을 실증장소로 제공하고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보완과 안전성·효과성을 입증하고 확보된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면서 "올해도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매출 향상,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조선업 취업자 최대 300만원 수당 준다

매달 25만원씩 1년 간 지원 퇴직자에 희망채용장려금도

전남도가 조선업계 인력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지역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며 내국인 취업자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 및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한다. 신규 취업자의 경우 이주정착금을, 조선업 퇴직자에게는 희망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주정착금은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목표·광양·해남·영암으로 이주한 신규 취업자에게 매

월 25만 원씩 최대 1년 간 지원한다.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채용장려금은 목표·광양·영암에 거주하는 조선업 퇴직자 중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25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희망자는 해당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를 작성,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도에 퇴사하거나 근무지 및 주소를 사업 해당 시·군 외로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3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젊은 청년 인력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나눔·연대 정신 계승...광주상인들 오월광주 '나눔세일' 동참

공전제과·베비에르·양동상가 등 15~19일 최대 18% 할인 행사

광주 상인들이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의 나눔·연대 정신 계승을 위한 '나눔 세일'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3일 김승재 광주시상인연합회장과 윤준호 공전제과 대표,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 이창호 양동복개상가 대표, 민경본 용봉동 패션의거리 대표, 김영애 봉선시장 대표 등과 '오월광주 나눔세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광주시와 상인 대표들은 협약에 따라 5·18 기념주간에 나눔세일 행사 참여 ▲나눔세일 참여업체 홍보, 홍보물 지원, 상품구매 촉진 ▲5·18정신 계승사업 발굴·추진·참여를 위한 상시 협의 등 나



눔·연대의 자랑스러운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전제과, 베비에르, 양동복개상가, 용봉동 패션의거리, 봉선시장 등이다. 나눔세일 협약을 맺은 업체는 5·18기념주기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에서 최대 18%까지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참여업체 상품 구매에 앞장서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우치동물원, 사슴사 친환경 시설로 새단장

철조망 없애고 함정 설치

광주 우치동물원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노후한 사슴사를 친환경적으로 새 단장하고 재개장했다. <사진> 6일 광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남유럽에 사는 '다마사슴의 고향'을 콘셉트로 꾸며 지난 3일 재개장한 사슴사는 기존의 철조망을 없애고 함정(모트)을 설치해 관람로와 동물사를 구분했다. 또 바닥을 흙과 돌로 바꿔 친자연적으로 개선했다. 또 앞으로 먹이그물 주머니 등을 배치해 동물의 무료함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 풍부화시설'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우치동물원은 설명했다. 새 방사장에서는 꽃사슴, 다마사슴, 붉은사슴 등이 함께 지내게 된다. 우치동물원은 또 지난 2월부터 다양한 종의 동물 전시 및 보호를 위해 국립생태원에서 압수·유기



로 보호 중이던 멸종위기종 붉은꼬리보아뱀과 알거슴도마뱀 등을 인계받아 전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천연기념물보존관도 건립한다. 올해 보존관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1992년 문을 연 광주우치동물원은 2016년 원숭이사를, 지난해 10월 곰사를 리모델링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광역시교육청

“다시 책으로”

책의 향기가 넘치는 광주 독서교육을 실현합니다